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2024년 합계출산율 0.76명… 전년 대비 8.5% 상승

임신 준비부터 출산 · 양육까지 촘촘한 맞춤형 지원

익산시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며 출생을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건강관리비·산후회복·육아용품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 패키지를 통해 도내 최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익산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도(0.70명)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4.1%)과 전북 평균(3.8%)을 상회하는 수치로, 익산형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시는 출산을 반등을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 지표로 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려 출산 친화 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임신 1회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785명 규모로 진행된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1

년 이내 산모가 지정 요양 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3,897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은 건강관리사를 출산자정에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시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경우 첫째아 기준 15일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11만 원이지만, 시 지원을 통해 실제 부담금은 1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교실도 연 20회 운영되며, 산전·산후 교육, 모유 수유·태교법, 신생아 이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은 3일 K-글로벌 프린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난징항공항공천대학을 방문해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술 논문 발표 · 장기적 협력 토대 마련

국립군산대, 난징항공항공천대와 미래 에너지 등 연구 국제 협력 추진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은 3일 K-글로벌 프린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난징항공항공천대학(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이하 NUAA) 공신부 다기능 경량재료 및 구조 국가중점실험실(MIT Key Laboratory of Multifunctional Lightweight Material and Structures)을 방문해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실라론 음극 저항로 소결, 창고 환경 최적화, 마이크로믹서 설계 등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양측은 수치 해석, 실험 검증, 물리적 메커니즘 연구에서 상호 보완적 강점을 발휘,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수준 높은 학술 논문 발표와 장기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The K-Bodong 연구팀은 비전공

메커니즘 규명 및 최적화 전략, 대형 창고 HVAC 시스템의 온·습도 균일성 개선을 위한 CFD 기반 최적화 연구, 3차원 나선형 홈 마이크로믹서 내부 유동 메커니즘 규명 및 혼합 성능의 회색 관계 분석(GRA) 기반 최적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NUAA 연구팀은 실험 장비와 소재 시료를 제공하고, 군산대 연구팀은 CFD와 수치 모델링을 통한 해석을 담당하며 상호 보완적 연구를 이어갔다.

국립군산대 장세명 교수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산업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심화된 공동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 항공항공천대학 대표 학생 쑹쑤오는 "처음에는 복잡했던 시뮬레이션과 실험 설계가 논의를 거치며 점차 명확해져 연구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생활개선군산연합, 15~17일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농촌환경보전지킴이 역할 실천… 농촌발전 · 농촌여성 지위 향상에 앞장서

군산시의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배지영)가 농촌환경 보전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영농폐자재를 집중 공동 수거한다.

영농폐자재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빈 병, 비료 포대, 시설하우스나 토양 탈칭에 사용된 각종 비닐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종종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돼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이에 군산시의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2008년부터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로 20년째 중요한 농촌환경정화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또,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농촌 여성 지도자로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 지속적인 농촌발전과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에 앞장서는 한편,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활동을 통해 환경지킴이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52톤의 영농 폐비닐 등을 수거해 얻은 수거보상금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됐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와 읍면동 생활개선회가 함께한 이웃을 위한 나눔은 총 12회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으로 전달됐다.

군산시의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이번에 수거되는 폐기물도 전량을 한 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재활용·처리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통해 환경 오염 감소 및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꾸준히 진행해온 공동 수거 사업은 농촌 환경정화는 물론, 농산부산물 태우기 금지 정착과 농촌 대청화재 위험 감소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배지영 회장은 "군산시 농업인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20년 동안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어졌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NS홈쇼핑, 'NS 푸드페스타' 성공 다짐

익산시가 NS홈쇼핑과 대한민국 대표 식품문화축제인 NS 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시장과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NS홈쇼핑이 총괄 사업 계획을 익산시가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공동 주관사에서 협력 방



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홍보 전략 역할 분담 등을 공유,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다짐했다.

NS 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합계 44일간산

업단지 내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린다. 올해 4회째를 맞아 축제 규모를 대폭 확장하고 식품 산업 중심에서 관광객 체험형으로 전환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을 자랑하는 '요리경연'이 펼쳐진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요리경연대회는 △미식 간편식 △조리 전공 대학생 △아빠와 자녀 △글로벌 라면 등으로 나뉘어 본선이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와 장소가 순차적으로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먼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오는 22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및 임신부는 29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노인 대상 독감 접종은 연령별로 순

차 시행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익산시민 중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장애폭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증 1~3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취약계층은 10월 24일부터 익산 내 보건기관 40개소에서 접종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6개월 이상~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월 1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마음 든든한 한 끼' 익산

다리로움 밥차, 재운영

익산 다리로움 밥차가 따뜻한 식사로 시민 곁에 다시 찾아간 다

익산시가 다리로움 밥차의 재정비를 마치고 3일 북부권 취약계층을 위해 합영 아사달 공원에서 이동 밥차로 재운영을 시작했다.

다리로움 밥차는 8월 휴식기를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익산 곳곳을 누비며, 홀로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3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주차별로 다양하다. 첫째 주는 격일로 합영 아사달공원 또는 어양공원에서 현장 조리 배식을 하는 이동 밥차로 진행된다.

둘째 주는 동산동으로 이전한 행복나눔마켓(서동로4길 37), 셋째 주는 송학동 자원봉사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넷째 주는 배산체육공원에서 공연과 함께는 문화형 밥차로 운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K주얼리, 국제

전시회서 빛난다

익산 주얼리 기업들이 국제 전시회를 통해 세계 무대로 향한다.

익산시는 3일 '서울 국제 주얼리엑스포'에 '홍콩 주얼리&월드 전시회' 참가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현을 익산 시장은 참가 기업의 행사 진행 내용을 청취하며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수출 판로 개척 등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나눴다.

'서울 국제 주얼리&월드 전시회'는 오는 12~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지역 6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홍콩 주얼리&월드 전시회'는 오는 17~21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지역 19개사가 해외 바이어 발굴과 상담을 통해 판로 개척에 나선다. 특히 익산대금속협동조합을 통해 12개사가 단체 부스로 참여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더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 · 금당 · 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